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

The Level of Satisfaction Middle - Aged Married Women Feel in Their Family Lif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Manner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 정 우
강사 김 경 아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Lee, Jeong Woo
Lecturer: Kim, Kyung Ah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y how much variables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manners. In addition, subjective and objective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manners and the satisfaction felt in family life as a general has been examined.

In total, 338 middle-aged married women were studied to serve as data sourc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indicated as follows:

1.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as a high level of manner implementation among the middle-aged married women studied.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is level were as follows: educational experience in manner-uplifting courses, self-esteem, and humanism preference orientation.
2.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s a general, the study showed reasonable standards. The following variables affected this level: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family, whether or not the women are employed, religious obligations, self-esteem, humanism preference orientation, manners within the family life itself, manners in ancestral services, and manners in communications. It was clear however that the implementation of manners in general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melioration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felt with family life.

I. 서론

오늘날 중년기에 접어든 기혼 여성들은 역사적 혼란기에 태어난 세대들로서 가정적·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동시에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인 세대와 서구 현대 문물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들만의 생활 양식을 뚜렷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정신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돈 속에서 중년기 주부의 생활을 가치롭고 풍요롭게 해주는 규범 문화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부의 생활 이념은 주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가정의 미래를 예견해 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건전한 중년기 주부의 가치 규범이 매우 중요하다. 바람직한 가치 규범은 곧 우리의 소중한 전통 윤리인 예절(禮節)로 집약될 수 있다. 예절이란 생활을 이끌어가는 정신적 질서로서 즐겁고 조화로운 인간으로서의 자기 관리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 주는 생활 규범이며 활기찬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필수적인 윤희제이다(김득중, 1997).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의식에 바탕을 둔 생활예절이야말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지탱해 주는 정신적 기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년기는 인생 단계 중 타인들의 배려나 관심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주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예절(禮節)을 통한 마음과 행동으로 생활한다면 자칫 각박해지기 쉬운 중년의 공허감을 극소화하고 보다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나를 가다듬고 남을 배려하며 이기심과 소유욕을 버린 생활예절의 진정한 실천은 풍부하고 완성된 또 하나의 나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년기 주부에 있어 생활예절의 실천이 곧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년 여성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와 가정생활 만족도를 연결시켜 가정관리학적 측면에서 검증된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생활 규범으로서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와 가정생활 만족의 정도 및 관련 변인들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중년기 여성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예절(禮節)을 통한 가정생활 만족도 향상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중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혼 여성들이 중년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주부의 특성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성인 중기 인구의 증가와 자녀 양육 기간의 단축 및 자아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인해 중년기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간 발달이란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환경적·심리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중년기를 구분 짓는 지표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행 연구(김명자, 1988; 김현화, 1992; 박수정, 1992; 예창명, 1996)에서는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의 두 관점을 고려하여 막내 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40-59세 이하의 주부로 구분짓고 있다.

이러한 중년기 주부의 특성을 심리적인 측면, 신체적인 측면 및 가족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첫째, 자아 개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자녀 양육 등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시했던 여성은 자녀의 독립에 즈음하여 실망감이나 상실감에 빠져 자아 개념이 낮아진다(김명자, 1989)고 한다. 반면, 중년기에 이르면 자기확신감이 증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큰 자유감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 개념이 높아진다(Erdwins & Mellinger, 1984)는 견해도 있다. 둘째, 중년기에는 남성성·여성성이 통합되어 성역할이 보다 융통성있게 변화하며 잠재되었던 개개인의 인

성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Gutmann, 1975). 셋째, 시간 전망의 변화가 일어나 과거, 현재, 미래를 동등하게 볼 수 있게 되며 연령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넷째, 기존의 가치나 목표, 생활양식, 가족 생활에 대하여 비교적 실망스러운 감정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아에 대한 재평가는 남은 생애를 보다 현명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김명자, 1989).

신체적인 특성으로는 신체 조직의 노화가 진행되고 폐경과 함께 체력 저하에 따른 기능의 저하를 체감하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는 시기이다.

가족 관계적인 특성으로는 새로운 역할로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첫째, 자녀들이 취업이나 혼인 등으로 부모를 떠나더라도 심리적·경제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긴다. 반면, 자녀들의 대외적 관심과 접촉 및 부모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려는 가운데 중년기 부모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둘째, 자녀 중심으로 생활해오던 생활방식이 부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새로운 부부 관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만일 그동안 부부만의 공유된 세계가 없이 경직된 부부 관계였다면 갑자기 생긴 이러한 부부만의 시간을 새롭게 둘만의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박승욱, 199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기는 많은 변화의 시기로서 삶의 공허감과 변화에 따른 이중적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자아 성찰 및 대인관계 조정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생활예절 행동과 관련지어 중년기 부인의 적응과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생활예절 수행 정도

생활예절 수행 정도란 예절 생활의 정립을 위하여 실제 주부가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실천의 정도에 대한 주부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이정우·김경아, 1997).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만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초

점을 둔 선행연구가 전무하므로 연구 대상을 달리 한 생활예절 수행 정도의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청소년 및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예절 수행 정도를 연구한 김진규(1996)는 혼전의 성순결(85.1%), 회갑의식(80.8%), 윗어른에 대한 위계질서(74.3%) 등의 항목에서 생활예절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현대 사회에서의 효도 이행도(52.9%), 문안 인사(50.2%), 윗어른에 대한 한문식 존칭 사용(47.1%) 등의 항목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학부모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가 높은 반면 학생들의 수행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을 비교한 이길표(1997)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생활예절 의식이 행동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예절 의식과 생활예절 행동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생활, 몸가짐, 식생활, 언어 순으로 예절 행동이 잘 이루어져 의생활에 대한 예절 수용 정도가 높다고 결론지었다. 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어머니의 생활예절 행동이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하위 영역 중 언어 예절 행동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기혼 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생활예절 수행을 연구한 이정우·김경아(1997)는 생활예절 수행에 비해 가치의식이 높게 나타나 예절의 격식이 실제에 못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일상생활 예절, 가정생활 예절, 식생활 예절, 사교 예절, 제사 예절, 인사 예절, 대화 예절의 순으로 생활예절 수행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또한 생활예절 가치의식이 수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이길표(199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3. 중년기 주부의 생활 만족도

중년기 생활 만족도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중년을 보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Kalish(1975)는 생활 만족도를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목표 성취를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여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조완규(1993)는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매일의 생활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 또는 감정을 느끼며 유지하는 정도라고 개념 지었다. 특히,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은 전체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Kopelman, Greenhausd & Connolly, 1983)으로, 가정생활 만족도란 가정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이나 행복 등의 주관적인 감정 및 태도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이루어진 중년기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긍정적 관점을 뒷받침 해 준다. 예컨대 Hayes와 Stinnett(1971), Glenn(1975)는 연구대상의 51%가 중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득의 증가,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증가, 보다 많은 자유, 자신의 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이 중년기 생활 만족도의 증가 요인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뚜렷하다고 하였다.

특히, 중년기의 발달 과업을 훌륭히 수행한다면 중년기 뿐 아니라 노년기의 생활 만족과 행복까지도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 일정한 경제적 생활 수준을 세우고 유지하기, 사회제도·규범·기관 등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 갖기, 배우자 및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 유지하기, 취미를 살려 여가를 유용하게 보내기, 사회의 윗사람으로서 알맞은 역할과 도리를 다하기, 미풍양속을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사회적 지위나 성취에 알맞은 처신을 하기(김종서의 공저, 1982) 등을 그 주요 과업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년기가 내적인 혼란과 우울의 시기인지 새로운 성취감과 안정의 시기인지는 경제적 여건, 사회계층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시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Craig, 1983),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년기에 있어 자녀 독립, 은퇴 등의 생활 사건과 폐경, 노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현상을 연령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비교적 생활에 잘 적응하여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가정을 선행 연구(Deutscher, 1964; 김현화, 1992; 박경숙, 1993; 진미정·옥선화, 1994; 유지영, 1996)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련 변인 고찰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와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중년기 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달리한 관련 연구들을 포함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학력

학력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 정도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곽정순(1995)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예절 수행 정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이길표(1997)의 연구에서는 일부 하위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학력과 관련된 가정생활 만족도의 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학력을 가진 주부일수록 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 수집의 기회가 많아 삶의 만족도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다(이종숙, 1989; 김현화, 1992; 유지영, 1996; 정옥례, 1996; Gould, 1972)고 나타났다. 반면, 오히려 학력이 높은 중년기 여성은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자녀 독립기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Cox, 1980). 또한, 박경숙(1993)과 진미정·옥선화(1994)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2)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 정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곽정순(1995)의 연구 결과 생활수준이 높고 부모의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의 자녀가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보다 생활예절 실천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우·김경아(1997)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월평균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년기 주부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서 가정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이종숙, 1989; 박수정, 1992; 김현화, 1992; 진미정·옥선화, 1994; 정옥례, 1996; 유지영, 1996)들의 일치된 결과이다.

3) 취업 여부

생활예절 수행 정도와 관련하여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 결과 취업 주부가 생활예절을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정순(1996)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는 취업 주부의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 자녀의 예절 생활이 잘 지켜진다고 하였다.

한편 가정생활 만족도와 관련 지어 볼 때 취업은 가정 내에서의 귀속적인 역할 외에 선택적인 역할을 부가해 주므로 중년기 주부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Hayes & Stinnett, 1971). 그러나, 이종부담의 역할 갈등으로 인하여 취업 주부가 오히려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이종숙, 1989). 또한, 일부 연구(김현화, 1992; 박경숙, 1993; 진미정·옥선화, 1994; 유지영, 1996; 정옥례, 1996)에서는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4) 종교 유무

종교 유무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 정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애(1991)의 연구 결과 하위 영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제사 예절 수행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적 특성에 따른 제사 절차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다(김현화, 1992; 유지영, 1996; 정옥례, 1996; Hayes & Stinnett, 1971; Campell, 1976)고 하

나, 이종숙(1989)과 박경숙(1993)의 연구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족 형태

가족 형태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 정도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박정순(1996)의 연구에서 일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즉, 물건 다루기의 영역은 핵가족일 때 손님 마중과 배웅 예절은 확대가족일 때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정옥례(1996)의 연구에서도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핵가족일 때 삶의 만족도가 다소 높다고 보았으나, 김현화(1992)와 정옥례(1996)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다.

6) 예절교육 수강 경험 여부

예절교육 수강 경험 여부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 정도를 살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애(1991)의 연구 결과 예절 교육 실시 이후 예절에 대한 태도가 모든 영역에서 크게 향상되었으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박정순(1996)도 교내 생활관에서 예절 교육을 받은 여고생이 그렇지 않은 여고생보다 가정 생활예절과 학교 생활예절의 수행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정우·김경아(1997)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예절교육 경험 여부가 생활예절 수행에 매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일관성있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절교육 수강 경험 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7)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생활예절 수행 정도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Hayes와 Stinnett(1971), 정옥례(1996)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년기 여성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조완규(1993)의 연구에서도 농촌에 사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8) 가치성향

생활예절 수행과 가치성향을 관련지어 연구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 의하면 집합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주부일수록 생활예절을 보다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주부는 물질보다는 인간 즉, 가족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여 수행하므로 가정생활에 있어 더욱 만족하며, 집합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주부는 인간의 가치와 관심을 중요시하여 개인보다는 집단을 고려하게 되므로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임정빈, 1988)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중년기 주부의 배경변인이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년기 주부의 배경변인, 생활예절 수행 정도 및 가정생활 만족도의 인과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선정

1) 생활예절 수행에 관한 척도의 구성은 현행 예절 교육서인 『우리의 생활예절 (전례연구위원회, 1996)』 『생활예절(이정우의 공저, 1997)』 『생활예절 (한국여성교양학회, 1997)』 등을 비롯한 관련 예절 문헌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개념 정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만을 선별·수정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한 구성 타당도와 Cronbach' α

를 산출하여 일상생활 예절, 가정생활 예절, 제사 예절, 사고 예절, 인사 예절, 대화 예절, 식생활 예절의 7개 영역 총 28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alpha=.87$ 로 나타났으며,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5점에 가까울수록 평상시에 생활예절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 가정생활 만족도의 척도는 Hayes와 Stinnett (1971), 임정빈(1988), 이정숙(199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재정 및 여가, 부부 관계, 시댁 관계, 자녀 관계 등의 4개 영역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는 $\alpha=.84$ 로 나타났으며 5점 likert형으로 총점수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아존중감의 측정 도구는 박애선(1993)의 설문을 이용하여 신뢰도와 요인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의 총점수만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72$ 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4) 가치성향¹⁾은 임정빈(1988)이 재구성한 인본주의(人本主義)/물질주의(物質主義) 가치성향과 집합주의(集合主義)/개인주의(個人主義) 가치성향의 4차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총 14문항이 선정되었으며 Cronbach' $\alpha=.82$ 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녀 1명 이상을 둔 유(有)배우자 40 ~ 59세의 중년기 주부

- 1) • 인본주의 가치성향(humanism value orientation): 인간과 자연 중에서 인간의 가치와 관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애를 기초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가치성향
- 물질주의 가치성향(materialism value orientation): 인간보다는 물질에 관심과 가치를 두며 실질적인 결과를 중요시 하는 가치성향
- 집합주의 가치성향(collectivism value orientation):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개인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집단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중요시 하는 가치성향
- 개인주의 가치성향(individualism value orientation): 모든 사고와 관심이 개인에게 한정되고 자신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개인의 권위와 자유를 중히 여기며 개인을 기초로 하여 모든 행동을 규정하려는 가치성향

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재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997년 6월 16일에서 28일 사이에 중년기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8월 8일에서 28일에 걸쳐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총 400부를 배부하여 36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기재가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26부를 제외한 33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여 요인 분석·Cronbach' α · 빈도·백분율·평균·표준편차·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Multiple Regression·경로 분석 등을 산출하였다.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4.7%, 대졸이상 15.7%였으며, 직업별로 보면 표본의 36.4%가 취업 주부로, 63.6%가 비취업 주부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각각 87.6%, 12.4%로 핵가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 12.4%, 150-200만원 미만 18.0%, 200-250만원 미만 26.6%, 250-300만원 미만 10.4%, 300-350만원 미만 15.4%, 350만원 이상 17.2%로 나타났다. 종교는 유 72.5%, 무 27.5%로, 예절교육 수강 경험은 유 63.9%, 무 36.1%로 학교나 사회기관을 통해 예절교육을 받아본 사람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표집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우선, 학력은 국졸이하 5.9%, 중졸 21.9%, 고졸이 51.8%로

2.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 및 가정생활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표 2>에서 보듯이,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3.90(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8점)의 중간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초등학생의 생활예절 실행정도 61점(김정신·노은호, 1996)이나 고등학생의 생활예절 행동 60점(이길표, 1997)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중년기 주부들이 생활예절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는 일상생활 예절, 가정생활 예절, 식생활 예절, 사고 예절, 제사 예절, 인사 예절, 대화 예절의 순으로 나타나 대화 예절 영역을 높일 수 있는 집중적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주부의 언어 생활예절 행동이 가장 낮다고 한 이길표(1997)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3.35(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7점)로 나타나 비교적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년기의 생활 만족도가 다른 시기보다 안정적이라는 선행 연구(Duvall & Miller, 1985; Hayes & Stinnett, 1971; Glenn, 1975; 김현화, 1992; 박경숙, 1993; 진미정·옥선화, 1993; 유지영, 1996)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서, 현재 중년기 여성은 중년 시기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정상적인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N=338)

변 인	구 분	빈도(%)
학 력	국졸이하	20(5.9)
	중졸	74(21.9)
	고졸	175(51.8)
	전문대 졸	16(4.7)
	대졸이상	53(15.7)
직 업	유 무	123(36.4)
		215(63.6)
가족 형태	핵가족	296(87.6)
	확대가족	42(12.4)
	150만원미만	42(12.4)
	150-200만원미만	61(18.0)
월평균소득	200-250만원미만	90(26.6)
	250-300만원미만	35(10.4)
	300-350만원미만	52(15.4)
	350만원이상	58(17.2)
종 교	유 무	245(72.5)
		93(27.5)
예 절 교 육 수 강 경 험	유 무	216(63.9)
		122(36.1)

〈표 2〉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 및 가정생활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변인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생활예절 수행 정도	일상생활 예절	4.36	.46
	가정생활 예절	4.05	.60
	제사 예절	3.63	1.14
	사교 예절	3.90	.63
	인사 예절	3.50	.92
	대화 예절	3.31	.74
	식생활 예절	4.01	.64
	전 체	3.90	.42
가정생활만족도	전 체	3.35	.60

3. 배경변인이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인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미치는 변인으로는 예절교육 수강 경험 여부($\beta=.13$), 자아존중감($\beta=.28$), 인본주의 가치성향($\beta=.27$)으로서 예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생활예절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절교육 수강 경험이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애(1991)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곽정순(1996) 및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중년기 주부들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가 교육으로 학습되고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이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선행 연구가 없는 관계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된다(Sigall & Gould, 1977)는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치규범인 생활예절을 보다 잘 지키도록 동기화되어 생활예절 수행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본주의 가치성향이 생활예절 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예절의 궁극적 목적인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예절의 실천 정도가 높아

〈표 3〉 배경변인이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인	생활예절 수행		일상생활 예절		가정생활 예절		제사예절 예절		사교예절		인사예절		대화예절		식생활		전 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학력	.00	.01	.02	.04	-.06	-.06	.09	.16**	.01	.01	-.01	-.01	-.02	-.04	-.01	.02		
취업 여부	-.04	-.04	.02	.01	.18	.08	-.00	-.00	.04	.13*	-.04	-.03	-.07	-.05	.03	.03		
예절교육 수강 경험 여부	-.00	-.00	.15	.18*	.12	.05	.07	.06	.39	.20***	.06	.04	.10	.08	.11	.13**		
자아존중감	.19	.20***	.35	.27***	.13	.06	.23	.17**	.18	.09	.47	.30***	.23	.17**	.25	.28***		
인본주의 가치성향	.23	.28***	.17	.17**	.11	.05	.16	.14*	.16	.10	.22	.17**	.31	.28***	.20	.27***		
상수	2.54		1.53		3.98		2.00		1.58		.95		1.46		2.01			
R ²	.14		.15		.03		.10		.10		.13		.14		.20			
F ratio	5.90***		6.50***		1.21		4.20***		3.79***		5.26***		5.90***		9.01***			

*P<.05, **P<.01, ***P<.001

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

<표 4>와 같이 중년기 주부의 전체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따라 가정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위영역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생활 예절과 사고 예절, 대화 예절은 매우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나타내어 생활예절 수행 정도가 높은 집단일 때 순차적으로 가정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상생활 예절, 제사 예절, 식생활 예절 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는 상집단이 중·하집단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인사 예절도 상·중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일괄적으로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가 높을 때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가정생활 예절과 대화 예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Terman(1988)에 의하면 친절하고 협동적이며 전통을 존중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혼인 생활에 적합하다고 했듯이, 중년기 주부가 가정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서로를 배려하는 예절 규범을 잘 실천하는 가정 문화를 조성할 때 보다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의 방법이나 기술 면에서 예절을 지켜 질적인 대화를 주고 받을 때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 예절과 대화 예절 수행 정도는 가정생활 만족도를 증진시켜주는 의미있는 변인으로서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따라 가족원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결국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피드백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가정관리의 수행 과정인 생활예절 행동의 실천 정도가 결과적 요소인 가정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4>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가정생활 만족도	F값	Duncan's
생활예절수행정도	일상생활 예절	상	3.51	8.08***	A
		중	3.30		B
		하	3.21		B
	가정생활 예절	상	3.55	19.98***	A
		중	3.36		B
		하	3.05		C
	제사 예절	상	3.50	6.43**	A
		중	3.33		B
		하	3.21		B
	사고 예절	상	3.53	10.86***	A
		중	3.37		B
		하	3.16		C
	인사 예절	상	3.41	5.53**	A
		중	3.40		A
		하	3.15		B
	대화 예절	상	3.58	23.63***	A
		중	3.32		B
		하	3.06		C
	식생활 예절	상	3.54	8.67**	A
		중	3.30		B
		하	3.23		B
	전 체	상	3.64	28.07***	A
		중	3.34		B
		하	3.09		C

** $P < .01$, *** $P < .001$

<표 5>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생활예절 수행 정도의 영향력

독립변인	가정생활 만족도		설명력과 유의도
	b	β	
가정생활 예절	.27	.27***	상수 = 1.26 $R^2 = 21$ F ratio = 12.35***
대화 예절	.16	.20***	

*** $P < .001$

〈표 6〉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생활예절 수행 정도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예절		대화 예절		b	β
	b	β	b	β		
월 평균 소득	-.00	-.03	.00	.04	.00	.18**
취업 여부	.02	.01	-.04	-.03	.16	.13**
종교 유무	-.06	-.04	-.05	-.03	.03	.10*
자아존중감	.35	.27***	.47	.30***	.35	.28***
인본주의 가치성향	.17	.17**	.22	.17**	.11	.10*
가정생활 예절					.19	.19***
제사 예절					.07	.13**
대화 예절					.10	.13*
상수	1.53	.95	-.08			
R ²	.15	.13	.39			
F ratio	6.50***	5.26**	12.95***			

*P<.05, **P<.01, ***P<.001

증명된 만큼 중년기 주부 스스로 가정생활 속에서 최대한 예절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중년기 주부의 배경 변인, 생활예절 수행 정도 및 가정생활 만족도간의 인과적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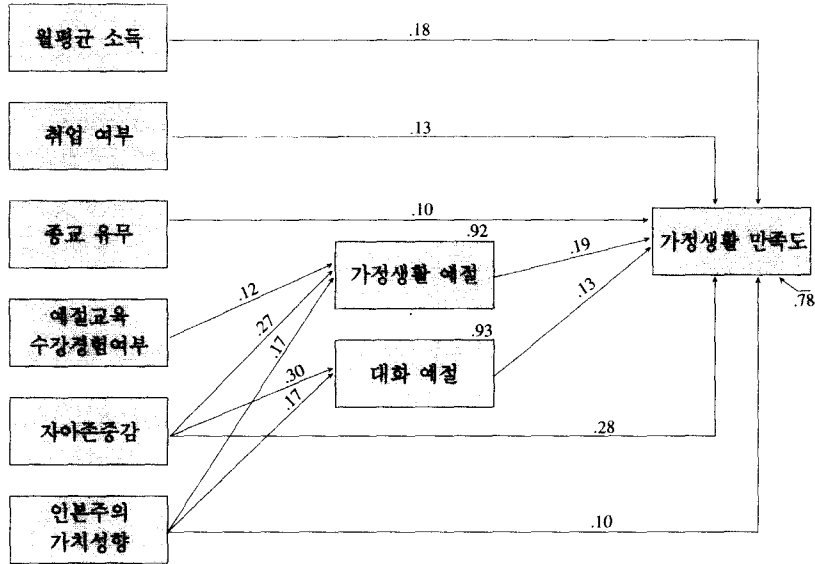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배경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월평균 소득($\beta=.18$), 취업 여부($\beta=.13$), 종교 유무($\beta=.10$), 자아존중감($\beta=.28$), 인본주의 가치성향($\beta=.10$), 가정생활 예절($\beta=.09$), 제사 예절($\beta=.13$), 대화 예절($\beta=.13$)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39%였다. 이중 자아존중감 변인이 중년기에 처해 있는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갈등이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에 잘 대처하여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Hayes & Stinnett, 1971; 정옥례, 1996; 조완규, 1993)들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시가 친척과 자주 접촉할 때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유지영(199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사 같은 의례적 행사

〈표 7〉 인과 효과

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월평균 소득	.30	.18	-	.18	.12
취업 여부	.15	.13	-	.13	.02
종교 유무	.19	.10	-	.10	.09
예절교육 수강 경험여부	.14	-	.02	.02	.12
자아존중감	.45	.28	.09	.37	.08
인본주의 가치성향	.25	.10	.05	.15	.10
가정생활 예절	.38	.19	-	.19	.19
제사 예절	.17	.13	-	.13	.04
대화 예절	.34	.13	-	.13	.21

를 통한 접촉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증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이 인과 모형을 도식화했으며,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과 효과를 〈표 7〉에 요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경 변인 중에서 가정생활 만족도에 정



〈그림 1〉 인과모형

적인 직접 효과만을 미치는 독립 변인으로는 월평균 소득($\beta=.18$), 취업 여부($\beta=.13$), 종교 유무($\beta=.10$)였다. 즉, 중년기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력이 큰 시기이므로(Oppenheimer, 1974) 경제적 안정은 곧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여부에 따른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취업 주부가 비취업 주부에 비해 주부 역할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어 폭 넓은 후원 체계를 지님으로써 중년기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커져 취업이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킨 것이라고 추론된다. 종교 또한 삶을 풍성하게 하고 중년기 여성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가정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인본주의 가치성향은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간접 효과보다 더 크나 간접 효과로 인해 총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이 두 변인은 생활예절 수행을 우회하기도 하나 가정생활 예절과 대화 예절을 경유하여 가정

생활 만족도에 이르는 인과 모형을 구성한다. 따라서 중년기 주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존중감과 인본주의 가치성향 등의 심리적 특성을 생활예절 수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가정생활 만족도가 증진됨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 중에서는 가정생활 예절과 대화 예절이 가정생활 만족도와 관련 있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많은 역할 변화를 경험하는 중년기에 있어 예절의 도덕적 실천은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가정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절교육 수강 경험 여부도 가정생활 예절을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중년기 여성이 취미 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위안을 얻고 정보 습득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자원으로 작용하여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김현화, 1992; 유지영, 1996)들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한편, 인과효과에서 제사 예절 수행이 가정생활 만족도를 증진시켜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과모형에서 제외된 것은 제

사예절 수행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독립변인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이 안정되고 취업이나 종교, 취미 등에 의한 자신만의 역할 영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과 인본주의 가치성향을 지니고 가정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인으로 검증된 가정생활 예절, 대화 예절 등의 실천적 규범이 뒤따를 때 보다 만족스런 가정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 정도는 중간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일상생활 예절, 가정생활 예절, 식생활 예절, 사고 예절, 제사 예절, 인사 예절, 대화 예절의 순으로 생활예절 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인사와 대화 예절 영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예절교육 수강 경험 여부, 자아존중감 및 인본주의 가치성향으로 나타난 만큼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예절교육 기회를 폭 넓게 확대하고 중년기 주부 스스로 자아존중감과 인본주의 가치성향을 높이려는 적극적 사고를 지닌다면 생활속의 예절 수행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년기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비교적 중년기에 큰 혼돈 없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예절 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는 상·중·하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생활 예절과 대화 예절이 가정생활 만족도를 증진시켜주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가정생활 속에서 가족간에 상호존중하는 대화

예절을 실천한다면 가정생활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모든 독립 변인들과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특히 자아존중감과 생활예절 수행 정도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가정생활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진 만큼 가정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주부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지니고 자기관리를 통해 생활예절 수행 정도를 점검하고 성실 것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보람되고 안정된 중년기를 보내고 품위있는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규범화되고 체계적인 예절 문화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방송이나 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예절에 대한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예절교육의 기회를 넓히며 또 한편 심층적인 사례나 실험의 후속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예절의 실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전통과 현대, 이론과 실기가 조화를 이룬 현실적이고 유익한 중년기 생활예절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특히, 중년기 주부들 스스로 가족 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 영역이나 효율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교양을 지니는 방법 등을 교육 받고 싶어하므로(예창명, 1996) 중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예절 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신력있는 전문 예절지도사의 양성 및 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기서 익힌 지식이 단순히 개인의 교양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부여하여 봉사 활동이나 취업,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중년기 예절 문화가 향상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박정순(1995), 청소년의 예절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 김득중(1997), 실천예절개론, 교문사.

3) 김명자(1988),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4) _____(1989), 중년기 연구, 교문사.

5) 김정신·노은호(1996), 초등학교 어린이의 예절 교육, 한국여성교양학회지, 3.

6) 김정애(1991), 중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7) 김종서의 공저(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 김진규(1996), 청소년의 예절교육, 한국여성교양학회지, 3.

9) 김현화(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0)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pp. 121-135.

11)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12) 박승옥(1992), 목회상담학적 접근으로서의 중년기 가족성장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3) 박애선(1993),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대 박사학위논문.

14) 유지영(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15) 예창명(1996), 중년기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요구도 분석, 숙대 석사학위논문.

16) 이길표(1997), 규범서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pp.135-146.

17) 이정우외 공저(1997), 생활예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8) 이정우·김경아(1997),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수행, 숙대 건강 생활과학연구소, 12, pp. 39-56.

19) 이정숙(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대 박사학위논문

20) 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만족,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1)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대 박사학위논문.

22) 전례연구위원회(1996), 우리의 생활예절, 성균관.

23) 정옥례(1996),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부부관계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연대 석사학위논문.

24) 조완규(1993),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5) 진미정·옥선화(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5.

26) 한국여성교양학회(1997), 생활예절, 양서원.

27) Campbell, A., Converse, P.E. & Rodgers, W.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 sage Foundation.

28) Cox, C.B.(1980), Illness Behavior in Mid-lif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29) Craig, G. J.(1983), Human Development, N.Y.: Plenum Press.

30) Deutscher, I.(1969), Socialization for Post parental Life, Marriage and the Family: A Comprehensive Reader, ed., J.K. Hadden, and M.L. Borgatta, Illinois: F.E. Peacock Publishers, Inc.

31) Duvall, E.M. & Miller, B.C.(1985), Marriage and the Family Development, 6th ed., N.Y.: Harper & Row.

32) Erdwins, C.J., & Mellinger, J.C.(1984), Mid-Life Women: Relation of Age and Role to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No.2, pp. 390-95.

33) Gutmann, D.L.(1975), The Post-Parental Years: Clinical Problems and Developmental Possibilities, Midlife: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ed., W.H. Norman and T.J. Scaramella, N.Y.: Brunner/Mazel, pp. 38-52.

34) Glenn, N.D.(1975),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Post parental St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 Family, February.
- 35) Gould, R. L.(1972), The Phase of Adult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No.5.
- 36) Hay, M.P. &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Vol.9, pp. 669-74.
- 37) Kalish, R.L.(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 on human development, California: Cole Publishing Co..
- 38) Kopelman, R.E., Greenhaus, J.H. & Connolly, T.F.(1983),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Performance 32.
- 39) Oppenheimer, V.(1974), The Life Cycle Squeeze: The Interacaction of Mens Occupation and Family Life Cycle, Demography, 11, pp. 227-45.
- 40) Sigall, H.& Gould, R.(1979),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Evaluator Demendigness on Effect Expendi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 41) Terman, L.N.(1988), Psychological factors in marital happiness, New York: McGraw- Hill.